



나눔은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http://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ty](https://facebook.com/groups/yagfynt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mailto: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4,21ㄴ-27  
 [화답송] ..... 시편 145(144),8-9.10-11.12-13ㄴ (◎ 1 참조)

(후렴) 저의임금이신하느님, 영영세세당신이름을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 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제 2 독서]..... 요한묵시록 21,1-5ㄴ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요한 13,31-33ㄴ.34-35

[성가안내]

- 입당성가 [138] 만왕의 왕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영우, 이 태묘	이 상홍 스테파노
이 정진 안토니오	한 동훈
정 정옥 스테파노	정 유나 실비아 가족
김 정숙 (영혼을 위하여)	양 미숙 마리아
문 종란 글라라	김 미화 마리 클레어
김 용기 요셉	양 미숙
송 희중 요셉	송 명자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한 동훈
이 영애 레지나 (영.육의 건강 위하여)	양 미숙 마리아
이 영애 레지나	선 명희 노아
박 혜화 도미니카	안 선정 마리아나
김 충욱	민 베드루
박 수정 크리스티나, 박 수진 줄리아 (영.육 건강)	양 미숙 마리아
양 미숙 마리아	선 명희 노아
이 희경 쟈마, 백승민 요한 보스코	이 정현 헬레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5월15일	백이백 아오스딩	김규현 프란치스코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지훈 아네스	김하나 미리암	장동환 헨리코
5월22일	정동주 유스토	김유화 데레사	김은아 미카엘라	김유화 데레사	양미숙 마리아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이지연 안젤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청년 미사 5월 1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찬양팀 모임 : 오후 3시 ~5시 교육관 3층 성가대실

● **청년 'Zoom' 목주의 기도 (레지오)**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미동북부 제78차 ME 부부 주말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2022년 5월 28일 ~ 30일
- 장 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롱 아일랜드)
- 참가비 : \$100
- 신청문의 :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철순 스테파노 부부  
646-322-3484 Chriskim04@gmail.com

●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 강의**

- 시 간 : 오늘, 5월 15일 주일 미사 후
- 장 소 : 다미아노 홀
- 강 사 : 한국인 강사 (프란치스코회 이민사목 담당 줄리안 신부님께서 주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천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뉴욕 대교구 분담금 자유로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분담금입니다.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Cash \$390 이규완, 유경자, 정다경, 제시카 리
	Check \$1,150 김미화, 이기수, 임영애, 강호영, 윤동진
감사 현금	\$100 이정현
합 계	\$1,640

1.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Carolo Kim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2.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은행명 : Chase Bank  
 수취인 :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Korean Ministry  
 Routing no / ABA no : 021000021  
 Checking Account no : 339500161165  
 은행주소: 1260 Broadway, New York, NY 10001

##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2층 컨퍼런스룸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4:30pm	아랫성당

## [2022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 젊은이들이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c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주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 오늘의 복음 묵상

( 요한 13,31-33-34-35 )

요한이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새 계명' 이야기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되는 주님의 수난을 짐작하게 하시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수난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은 '선교를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입니다.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티오키아 교회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이 선교할 때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 말은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봉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하며 오늘 독서를 끝맺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오늘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라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시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천상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어좌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과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이 마침내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난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오늘 복음의 끝에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요한이 보았던 환시의 사건이 되게 합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성교회의 본질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홍성남 신부의 특 쓰는 영성 사랑 "그 미묘한 것"

주님께서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심리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심리적 치유효과에 대해 강조합니다. 마음의 건강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 우리 교우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알겠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랑은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나와 하느님의 사랑, 나와 너와의 사랑, 그리고 나와 나와 사랑의 관계가 균형 잡혀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받는 것이 나와 나와 사랑입니다. 심지어 교우분들 중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홀대하면 마음 안이 사막처럼 황량해지고 사랑의 물이 매말라 버리기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랑을 꼭 마음 안에 진솔한 감정을 가득 채워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웃지 못 할 고백을 듣곤 합니다.

미운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도 힘든데 감정까지 다하란 것은 죽으란 말과 같습니다. 미운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짜증이 나서 더 미워할 수도 있으니 감정이 실리지 않더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폰대 유머를 하나 나눠봅니다. 비신자인 할머니가 신자 할머니에게 은근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란 양반 여자를 그리 좋아했다며?", "언놈이 그딴 소리 한대요?", "내가 성경을 쏘까 읽어보니 그렇더만?", "성경 어디?"

"그 양반 뻥하면 마리아인가 마르타인가 하는 다 큰 처녀들 집에 갔다누만.", "혈."

"글구 죽었다 살아나서도 어미보다 마리아 막달레나인가 뭔가 하는 지집부터 먼저 만났대지?", "허어얼."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부아가 치민 신자 할머니는 바로 성당에 가서 주님께 "주님 그때 처신을 잘하셨어야지. 왜 고딕시로 하셔서 저런 무식쟁이 할멈에게 내가 개망신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하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타. 내가 그때 서른 살 총각이었던지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인성도 가진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단다.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더구나. 용서해주라."